

JB · BNK금융지주 합병 제안 철회 촉구

전북 상공업계, 성명 발표 “지역금융 공공성 · 독립성 훼손…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도 역행”

전북지역 상공업계가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간 합병 제안에 대해 지역금융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20일 'JB금융지주 · BNK금융지주 합병 제안 철회 촉구 전북 상공업계 성명'을 발표하고, 일리인파트너스가 제안한 양 금융지주 간 합병 논의는 전북경제의 미래와 지역금융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역금융은 단순한 금융회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을 다시 지역기업과 도민에게 공급하며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

라며 “규모의 경제와 기업가치 제고만을 앞세운 합병 논리는 지역금융이 수행해 온 공공적 역할과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은행의 경쟁력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온 신뢰와 지역밀착형 금융서비스에서 나온다”며 “지역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금융그룹을 단기적인 투자수익 논리로 재편하려는 시도는 지역금융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은행은 수십 년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사회 공헌, 기업성장 지원 등을 통해 전북경제의 버팀

목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역할은 단순한 기업가치나 주주수익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합병이 현실화될 경우 그룹 차원의 자본 배분과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의 금융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과 지역기업 금융지원 축소 등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의 독립성과 지역성을 흔드는 합병 논의는 전북의 미래 성장전략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역

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지역금융은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해야 할 공공적 기반인 만큼 단기적인 투자수익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JB금융지주는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금융그룹으로서 지역경제를 지키는 책임과 역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지금은 지역금융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라며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합병 논의에 반대하며, 일리인파트너스는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의 합병 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우리동네 소포 접수 서비스’ 호응

전북지방우정청, 고창 농촌마을서 운영… 이용 편의 ↑

전북지방우정청이 고창군 농촌지역 주민들의 우편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우리동네 소포 접수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구분준)은 고창군 마을 이장단과 협력해 지난 4월 27일부터 교통이 불편하고 우체국과 거리가 먼 농촌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우리동네 소포 접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무거운 소포를 들고 우체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층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 1읍 3개면인 고창읍, 고수면, 흥덕면, 아산면의 대표 마을회관 10곳을 거점으로 운영되며, 이용 주민에게는 최소 25%의 소포요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오상근 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



이용 방법은 주민이 지정된 마을 회관에 소포와 요금을 맡기면 담당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소포를 수거해 우체국에서 접수하는 방식이다. 접수가 완료되면 집배원이 영수증을 다시 마을회관 지정 장소에 비치해 발송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북 제조업 생산 감소 · 수출 증가… 소비 · 건설경기는 부진

5월 수출 25% 늘고 고용 개선… 대형소매점 판매 · 건축착공은 큰 폭 감소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소비와 건설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2026년 5월 제조업 생산은 음료와 전기장비 업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8% 감소했다. 다만 계절조정지수 기준으로는 전월보다

1.3%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소비 부문에서는 대형소매점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했고,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도 28.8% 줄어 내수 부진이 이어졌다.

건설경기 역시 위축됐다. 5월 건축착공면적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4% 감소했고, 건축허가면적도 20.8% 줄어 건설투자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반면 수출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5월 수출액은 6억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0% 증가해 지역 수출 회복세를 이어갔다.

고용지표도 개선됐다. 5월 취업자 수는 99만7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천 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64.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2.2%로 0.4%포인트 하락하며 고용 여건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6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상승했으며, 주택시장에서는 5월 기준 주택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2%, 전세가격은 0.21% 각각 상승했다.

종합적으로 전북지역 경제는 수출과 고용이 개선 흐름을 보인 반면 제조업 생산과 소비, 건설경기는 부진이 이어지고, 물가 상승세는 지속되는 등 부문별로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다.

/오상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 회원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벤처기업의 경영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전기안전공사 · 구역전기협회, 전기안전 협력 워크숍 개최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 안전문화 확산 협력체계 강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구역전기협회가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하영)는 지난 1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구역전기협회와 공동으로 ‘전기안전 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이번 워크숍은 특정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안전관리 역할을 높이고 송 · 변 · 배전설비 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우 전기안전공사 전력계통검사처장과 우재화 구역전기협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실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HD



현대이에프가 새롭게 구역전기사업자로 참여해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기술 교류의 폭을 넓혔다.

워크숍에서는 △22.9kV 배전계통 위험성 평가 제도화 방향 연구 △154kV 유압변압기 상부 방압안전장치 절연 유 누유 보수 △초고압 송전선로 보호계전 성능 향상 방안 등 최신 기술과 우수 사례를 포함한 5개 주제 발표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오상근 기자

전주월드컵경기장서 ‘그린스포츠 캠페인’ 펼친다

전북환경청 · 전북현대모터스FC, 친환경 생활 실천 확산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북현대모터스FC와 손잡고 축구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그린스포츠 캠페인을 펼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김경록)은 오는 21일과 8월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FC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친환경 생활 실천을 알리는 ‘그린스포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약 2만 명의 축구 관람객을 대상으로 경기장 내 일회용품 사용 자감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주관하며 전북현대모터스FC,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 전북녹색

환경지원센터, 전북녹색기업협의회가 공동 참여한다.

21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는 경기장 동측 매표소 인근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고농도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 비점 오염 저감 방안 등을 알리는 홍보 ·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8월 1일 FC서울과의 경기에서는 익산역과 전주역을 오가는 무공해 수소 셔틀버스 10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캠페인이 진행되는 당일 모두 경기 시작 전과 하프타임을 활용해 친환경 생활 실천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중기청, 여성벤처기업과 간담회… 경영 애로 청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여성벤처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경영 애로를 청취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20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전북지회(회장 김지혜) 회원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성벤처기업의 경영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상만 청장을 비롯해 김지혜 전북지회장과 회원사 대표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여성벤처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자금 조달과 판로 확대, 기술혁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

해 마련됐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정책자금 확대와 연구개발(R&D) 지원 기회 확대를 비롯해 친환경 소공인 성장 지원체계 구축, 인공지능(AI) · 디지털 전환 대응 지원,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현장 규제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건의했다.

장상만 청장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작은 불편, 개선이 필요한 사항까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정책을 고민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된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